



2023  
VOL.02

# 지식공유 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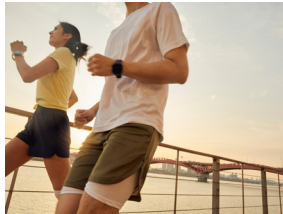


##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 KSP 포커스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 CID 연구포커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 소식

KDI, 세계은행 KWPF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감사패 수상



YKSP 우루과이 출장 소회 서면 인터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면, 「YKSP」를 주목!



## 행사

제 56차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 교수  
전 대통령위촉 외국인투자유치부총장 안충영  
cyahn@cau.ac.kr

### ● FDI 개념, 효과,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

세계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FDI는 여러 나라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이 자기자본으로 국경을 넘어 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다.

나라별로 인구나 부존자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통상과 투자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완제품에 대한 국제거래와 함께 국경을 오가며 원료와 중간재에 부가가치를 높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공급사슬망(Supply chain)에 참여하고 있다.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초국경 투자는 점점 중층화 되고 다기화 되어, 교류 당사국 모두에 이익과 효율을 가져다 주고 있다.<sup>1)</sup> 지금 많은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어난 경제붕쇄,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외부충격을 감당하기 위한 공급망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FDI를 추구하려 하고 있다.

FDI는 금리와 배당소득을 목적으로 타국의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구별된다. FDI는 “푸른 들판에서 생산시설의 건설(Greenfield type), 인수합병 투자(M&A type), 해외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회사내부 대출” 등을 통하여 일어난다. 통상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행위도 FDI에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 정착 리스크를 줄이고 기술 전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호스트 국가의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 경영활동을 하는 합작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대중을 이루는 FDI는 Greenfield type FDI로 통용된다.

FDI는 투자를 실행하는 다국적기업과 이를 수용하는 호스트 국가(Host nation)의 관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투자기업의 관점에서 1)수평적 FDI, 2)수직적 FDI, 3)복합적 FDI로 분류된다. 수평적 FDI는 국내에 이룩한 투자를 해외에 그대로 실행하는 반복투자를 의미한다. 수직적 FDI에는 호스트 국가의 자원을 취득하기 위한 후방수직(Backward vertical) FDI가 있고, 호스트 국가에 자사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유통 시설에 투자하는 전방수직(Forward vertical) FDI가 있으며, 양자를 모두 이행하는 복합형 FDI가 있다. 플랫폼 FDI는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투자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호스트 국가의 관점에서 유치하는 FDI는 수입대체형 FDI, 수출증대형 FDI, 정부주도형 FDI로 분류할 수 있다.

1 초국경화 현상과 Supply Chain에 관하여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Washington D.C., 2020.



FDI 유치국가는 고품질 FDI 유치를 통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취득하고, 새로운 생산방식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다. FDI는 외국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직접 실물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장과 고용을 즉시 일으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과 기술축적을 가능케 한다.<sup>2)</sup>

FDI에 관하여 부정적 관점도 존재한다. 한 나라 경제주권이 외국자본에 의하여 지배되고 국부가 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해야 한다는 외국기업 혐오증(Xenophobia)이 대표적이다. 다국적 기업이 호스트 국가의 주권사항이나 중요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셔널리즘이 강한 나라에서는 반외자기업(反外資企業) 정서에 힘입어 외투기업에 대하여 비우호적 제도와 차별적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 ● 한국의 FDI 패러다임 변화: 차관위주에서 FDI 적극 유치로 선회

부존자원의 부족과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던 한국경제는 1960년대부터 일관되게 대외지향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취하였다. 방대한 실업인구를 외자도입을 통하여 생산활동 인구조로 바꾸고, 노동집약 제품의 해외수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시동을 걸었다.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수입대체공업화의 대내지향을 추구할 때 한국은 개발의 초기부터 무한대의 해외시장에 수출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와 선진기술과 선진경영에 대한 학습효과를 추구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FDI 대신 외국차관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제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한국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현대판 '경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자주적 경제운용을 강력히 실행했다. FDI 정책에서 외국인 투자허용 업종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Positive List 제도를 유지하다가 많은 개도국에 비교하여 뒤늦게 1984년에 이르러서야 안보 및

농업 등 취약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Negative List 제도로 전환했다. 그 결과 한국은 개도국 가운데서 GDP에 대한 FDI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였다.

중화학 공업화를 통한 압축성장 기간에도 외채의존형 자본 조달은 지속 되었다. 그러나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대외차관 의존형 자본조달로 인해 그것도 단기자본에 크게 의존한 결과, 한국은 대외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급기야 국가부도를 막기 위하여 한국은 IMF의 경제관리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IMF로부터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지원을 받았다. IMF와의 약정에 따라 한국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sup>3)</sup> 더불어 한국은 대량실업과 사상초유의 마이너스성장 등 경제적 파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적극적 FDI 유치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창의적 FDI 관리정책을 도입하였다. 한국은 FDI 유치 이후 외투기업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세금, 관세, 인허가, 노사관계, 지재권, 자의적 행정규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기업이 제기하는 고충을 선제적 혹은 사후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장치로서 대통령 위촉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제도를 1999년에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실로 커다란 역발상이었다. 한국 국적의 옴부즈만은 반관반민의 신분으로 외국기업 편에 서서 한국정부에 의하여 발생한 고충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옴부즈만은 한국정부의 행정적 착오와 비합리적 규제를 바로 잡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2 FDI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로, Rugman, Alan M., *The Regional Multinational and Global strategic Manag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Dunning John H., *Global Capitalism at Bay*, Routledge, 2001.

3 Ahn Choong Yong,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n south Korea: Accomplishment and Unfinished Agenda,"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Vol.52 No.4., 2001.

## ●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왜 필요한가?

한국경제는 압축성장이 진행된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고임금화, 지가상승, 강성노조 등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의 비우호적 기업환경을 피하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시장확보, 자원구득, 국제적 공급망 참여를 목적으로 인건비와 지가(地價)가 저렴한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일찍이 감행했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유입 FDI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2005~2021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해외투자잔액은 4,41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국내 유입 FDI 총액은 1,573억 달러를 기록, 해외투자의 36%에 불과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를 통하여 13,600여 개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재 한국 전체 고용의 6%, 총수출의 20%, 국내 R&D에서 6.5%, 국내 총매출에서 13%를 차지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sup>4)</sup>

한국은 적극적 FDI 유치를 통하여 당연한 저성장, 투자부진, 만연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형 고도기술산업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색된 공급사슬망의 유연한 확충을 위해서도 FDI 유치가 절실하다. 서울을 세계적 금융허브로 만드는 구상이 있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네델란드는 국토와 인구에서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작지만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로 고소득국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에 기 진출한 외투기업에 대한 옴부즈만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기업이 국내 초기투자 이후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하는 이른바 증액투자의 규모가 신규투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01~2021년 기간 동안 한국에 기 진출한 외투기업이 이룩한 증액투자는 1,27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신규투자는 640억 달러에 불과한 사실에서도 자명하다. 기 진출한 기업이 당연한 애로사항을 잘 해결하고 기업 친화적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 기 진출기업의 증액투자는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신규로 FDI를 유치하는 노력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욱 빠르게 FDI를 늘릴 수 있다.

외국기업은 호스트 국가의 현지경영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왜 그러하고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기술 진보는 항상 선행적으로 일어나고 사업환경에 대한 법체계 정비와 개선이 후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의 FDI 정책과 외투기업의 투자환경 인식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셋째, 각종 인허가절차가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할 때,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며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인허가 기관들은 거시적 그림을 보지 못하고 소관 부처의 미시적 틀에 갇혀 규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넷째, 정부부처와 외국기업 사이의 갑을 관계에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의 부재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된다. 다섯째, 한 나라의 법령체계의 정비와 친기업 규제개혁은 부단히 국제적 모범관행을 반영하는 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옴부즈만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제적 모범관행을 준거로 고충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습득한 지식을 규제개혁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선제적 사후관리 서비스는 외국기업과 호스트 국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투자가 사이의 잠재적 분쟁해결(ISDS)과 예방을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의 효과가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 국제기구에 알려지면서 FDI를 유치하려는 국가들이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이 한국의 사후관리 옴부즈만 제도를 자국의 사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도입하였다.<sup>5)</sup> 지금 많은 개도국의 정부관리,

4 Ibid, 제1장.

5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진화와 옴부즈만 기능에 관하여 Ahn Choong Yong, "South Kore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Dynamics and Aftercare Ombudsman," Routledge (forthcoming) 참조.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 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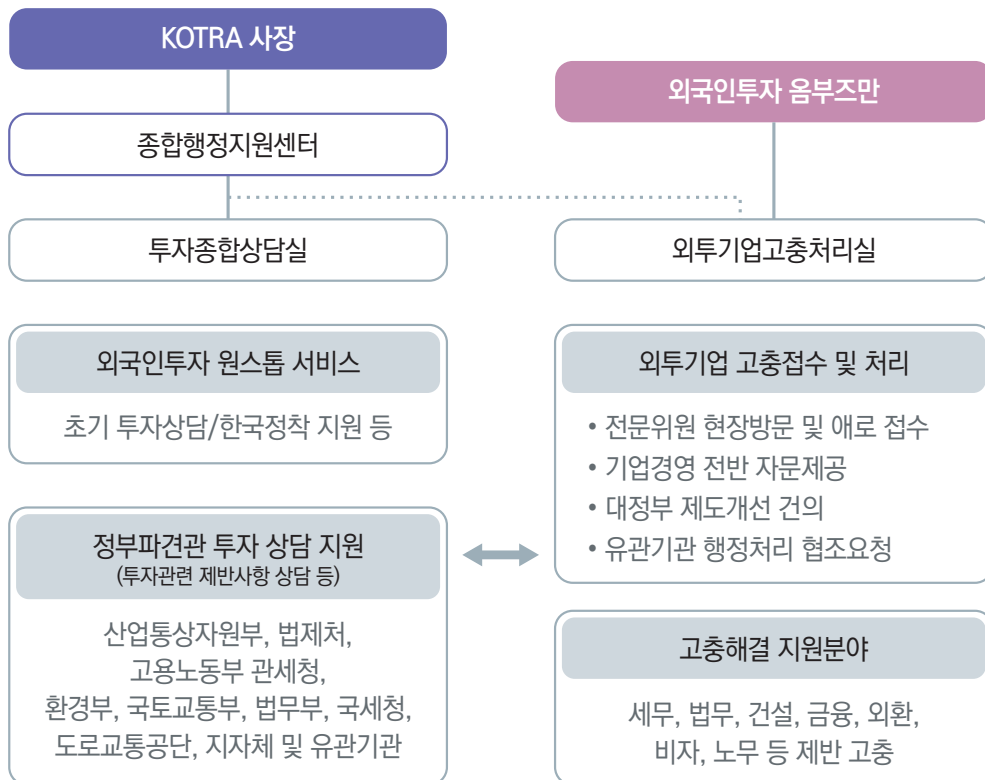
UNCTA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를 자주 순방하고 있다.

다변화된 초국경적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증유의 불확실성 속에서 미·중간 헤게모니 격돌로 지경학적 분열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는 공급사슬망을 와해시켰다. 미·중간 기술패권 격돌은 자유무역에 심각한 통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세계경제는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공급망의 재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간 투자보장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당사국들이 외투기업에 대하여 한국형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면 국경간 직접투자는 더욱 촉진되고 ISDS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데 외투기업에 대한 한국의 독보적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제도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사례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조직구성도



자료: <https://ombudsman.kotra.or.kr/ob-kr/cntnts/i-2616/web.do>, 검색일: 2023.5.16



#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전략그룹 그룹장  
이준희  
jhlee3@jipyong.com

ESG 열풍으로 기업들은 재무적·비재무적 가치의 통합과 경영 전략 및 관리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및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인권 중심의 비즈니스 가치 평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협력사 포함 공급망 관리 및 ESG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 되고 있다. 이제 ESG와 관련한 기업경영 환경 구축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ESG에 대한 리스크 없는 대응”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성장과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측면에서 “ESG의 유용한 활용”도 고민해야 하며, 이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기업의 ESG 영역과 이슈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패러다임과 잘 맞닿아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와 금융에서 기업경영의 ESG 평가 영역과 SDGs 목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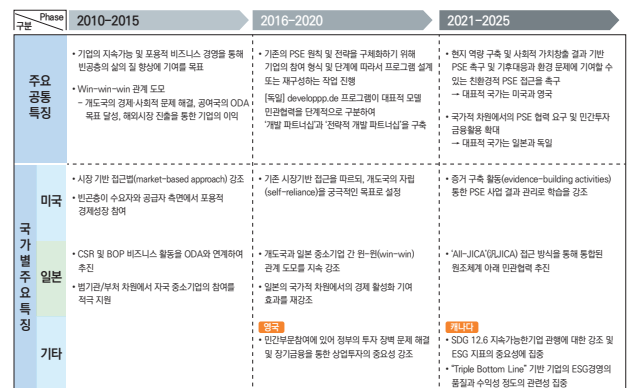
[그림 1] ESG경영 주요 영역과 SDGs 목표 연결



자료: 지평ESG센터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자료 재인용

ESG 패러다임 안에서 SDGs와 개발협력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ESG 경영을 생각해보면 개발협력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은 단순한 민간협력(PPP)을 넘어서서 윈윈(win-win)형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 [그림 2]는 최근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수립한 개발협력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Private Sector Engagement, PSE)에 대한 것으로 민간기업들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주요 공여국 PSE 정책 동향



자료: 지평ESG센터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자료 재인용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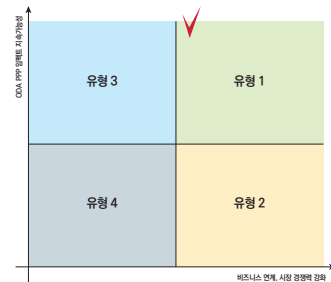
2020년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PSE 방향성과 투자 금융 분야에서 민간투자자와 ODA 연계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투자 금융 활용의 확대와 함께 명확한 성과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의 방법론, 측정지표에 대한 연구 및 개발도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한국의 ODA의 민간부문 참여(PSE)를 위해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의 3대 목표를 기반으로 9개의 추진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하여 ESG 패러다임과 함께 ODA에 민간부문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ESG 연계 개발협력에 있어 공공-민간 간 서로에 대한 이해 제고”

ESG 이니셔티브 및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ESG 경영 연계 중장기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NGO 등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ODA의 민간기업 참여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가치 기반의 개발협력 참여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역량 제고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본다. 2010년 이후 한국 글로벌 진출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CSR) 활동과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는데, 이전에는 사업장의 이해관계자 리스크, 지역사회 공헌 차원의 기업의 홍보와 브랜드 제고 중심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대부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단순한 금전이나 현물에 대한 기부 활동을 넘어서서 기업의 비즈니스 제품이나 벨류체인(value chain) 연계 역량강화 활동 등의 사업 모델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그림 3]의 유형 2, 유형 4).

[그림 3] 민간기업 개발협력 연계 사업 유형



주: 유형 1) ESG 경영전략적 파트너십 기반 지속가능 혁신형: 기업이 자신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ESG - PSE 연계 사업을 운영하고, 동 사업이 수원국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지속가능성을 가진 경우  
 유형 2) 주요 사업 및 주요 제품 신시장 전략 연계형: 기업의 핵심역량 또는 주요 제품을 ODA 사업과 연계하지만 수원국 민간 부문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임팩트 지속가능성은 낮은 경우  
 유형 3) 개도국 현지 사업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형: ODA 사업과 기업의 비즈니스 연계 정도는 낮으나 수원국 민간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개도국 현지 사업의 가치 사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우  
 유형 4) 글로벌 사회공헌형: 기업이 NGO 및 재단과 협력하거나 기부활동을 통해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자료: 국무조정실(2022) 연구용역

ESG 경영의 도입으로 기업의 환경,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되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의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환경과 사회의 이슈와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적 접근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하나의 새로운 시장과 기회의 접점으로 보고 기업들이 [유형 1]의 형태로 개발협력 참여 모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시의성 있고, 중장기적인 글로벌 SDG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저성장, 고위험 시대에 투자와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기업들은 가치 기반의 비즈니스가 생존경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ESG 패러다임이 가지고 오는 환경과 사회의 이슈가 민간 금융과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빅블러(Big blur) 시대에서 산업과 비즈니스의 융합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발협력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여에 대한 논의와 추진은 ESG 기반의 SDGs 달성과 한국기업들의 ESG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리스크의 뒷면은 기회라고 한다.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이 환경과 사회 가치 및 기술과 투자, 새로운 수요와 시장에 대한 균형감과 기민함을 이용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임을 명심하자. ▣

##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강경재

kjkang@koreaexim.go.kr

기술협력사업은 간접적인 서비스인 지식전달을 통한 국가 수준의 정책 변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사업의 특성상 산출물과 산출결과, 중장기 효과 사이의 논리연결이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성과관리의 관점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관리 tool의 선정이 중요하다.

기술협력사업의 한 유형인 지식공유사업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많은 원조기구들이 사용하는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의 일종인 Project Design Matrix(이하 PDM)를 성과관리 tool로 2018년에 도입한 바 있다.

PDM을 포함한 논리모형접근법 기반사업 성과계획 및 평가 방식은 이해관계자 간 협의된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목표 수립 및 프로젝트 내용의 일목요연한 요약이 가능하다. 또한 PDM은 가장 널리 알려진 tool인 만큼 사용자 간 이해도가 높아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유가 손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해관계자 간 목표에 대한 인식공유가 지식공유사업의 PDM 도입 동기 중 하나였던 만큼, 이 점은 매우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특유의 단순한 논리구조 정립 방식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복잡한 사업의 성과관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PDM의 의미있는 이용보다는 작성에 치우치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 지식공유사업의 PDM 활용 방식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지식공유사업의 PDM 활용 방식은 효과적인 성과관리 tool이라기보다는 사업 요약문서로서의 기능이 강하며, 작성과정을 통한 사업 논리 형성보다는 PDM 표 작성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PDM이 가지고 있는 형식의 경직성 극복과 과정의 충실성 제고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형식 측면에서 현재 지식공유사업의 PDM은 기본형과 달리 산출결과를 단기성과와 중기성과로 구분하여 산출물의 간접성과 산출결과의 복잡성이라는 지식공유사업의 사업논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단기성과와 중기성과 사이의 구분이 각각의 사업에 적합한 분석의 결과라기보다 일반적인 지식공유사업의 사업 논리구조에 따른 다소 기계적인 서술로 구성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논리모형접근법은 결과물인 PDM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현재 지식공유사업 PDM 구성 과정에서는 선행분석이 매우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PDM 작성 가이드라인에서도 나타난다. 지식공유사업의 PDM 가이드라인은 이해관계자 분석만을 사업별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사업의 논리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지식공유사업의 사업형식에 맞춰 진행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지식공유사업의 한계와 수요 대응 중심의 사업진행 방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대외협력이 그러하듯, 지식공유사업 신청 과정 중의 수요분석 과정은 협력국 측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식공유사업 운영자의 desk review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국이 실질적인 지식공유의 수요자인 만큼 스스로의 분석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과정이다. 다만, 협력국의 신청서에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식공유사업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최적의 산출물임을 확인하는 단계에 대한 분석 내용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성과관리 tool로서 PDM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분석의 단계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지식공유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지식의 습득 및 활용의 장애요소, 이해관계자들 중 반대자 집단 파악 등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커지며, 또한 기대되는 단기성과와 중기성과가 산출물인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근거 확인 역시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PDM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통된 이해와 인식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 심사 시 신청 과정 중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식공유사업 신청 서류 중 문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지식공유사업 담당자가

## “PDM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통된 이해와 인식 강화 필요”

해당 사업의 PDM 작성을 위한 분석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또는 협력국 이해관계자들과의 PDM 작성 워크숍 등의 시행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제도 개선 및 PDM 작성 역량강화와 함께 PDM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이론 등의 보조적인 분석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변화이론을 지식공유사업 평가나 설계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내 기관에서도 PDM과 병행되어 사업 계획 수립 tool로 활용되고 있다. 단, 변화이론은 PDM과 별도의 훈련과정이 필요하고 이 역시 분석을 위한 자료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잘 활용되지 못하고 현행의 PDM과 마찬가지로 서류 작성에 치중하거나 기계적인 적용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성과관리의 관점과 방식은 원조 환경과 함께 계속 변화하기에, 성과관리를 위한 완벽한 tool은 존재할 수 없다. 성과관리를 위한 긍정적인 문화조성은 효과적인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식공유사업의 PDM 활용이 PDM 도입 초기 많은 시행 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018년에 도입하여 정착되는 단계를 밟고 있는 PDM이 제도와 방법의 개선을 통해 성과관리, 더 나아가서는 지식공유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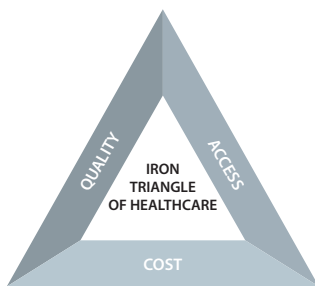
##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파트너십팀 전문연구원 김준  
kimjun@kdi.re.kr

경제학에서는 ‘불가능한 삼각 정리(Impossible Trinity)’라 하여 개방경제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세 가지로 환율 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꼽는다. 이러한 딜레마가 보건의료계에서는 ‘철의 삼각(Iron Triangle of Healthcare)’이라는 개념(그림 1)으로 존재하는데 제한된 의료자원 때문에 세 가지의 가치, 즉 의료접근성, 의료의 질, 가격의 통제라는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1] 보건의료 철의 삼각



자료: PopperandCo 홈페이지 (<http://popperandco.com/making-healthcare-smarter>)

하지만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여러 혁신적인 방안들이 제안되면서 이 철의 삼각이라는 개념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극심하게 나타나는 의료 불균형 해소에 스마트 헬스케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우간다 굴루에 사는 한 산모가 있다. 마을 보건소에서 출산을 하다 과다출혈로 급히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해당 보건소의 전문 의료인력은 간호사 1명이고, 이 간호사는 산부인과 전문 인력이 아닐뿐더러 산모의 혈액형조차 알지 못한다. 과거 두 차례나 해당 산모의 혈액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기록은 어디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 혈액형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제 시간에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이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스마트 헬스케어의 개념이 도입된 시점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스마트 헬스 케어가 아닌 ‘Tele-health’라는 용어로 쓰였고, 의료인의 원내 사용 목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하면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시작되었다.<sup>1)</sup> 이후, e-Health, u-Health를 거쳐 스마트 헬스 케어로 용어가 점차 고도화되었으며 서비스의 범위 역시 치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예방, 복지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헬스케어 활성화와 바이오 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표」, 보도자료, 2015.01.30.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표 1〉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 방향

구분	Tele-health	e-Health	u-Health	smart-health
시기	1990년 중반	2000년	2006년	2010년 이후
서비스 내용	원내 치료	치료 및 정보제공	치료 및 예방관리	치료/예방 복지/안전
주 player	병원	병원	병원, ICT기업	병원, ICT기업, 보험사, 서비스기업 등
주 이용자	의료인	의료인, 환자	의료인, 환자, 일반인	의료인, 환자, 일반인
주요 시스템	병원운영 (HIS, PACS)	의무기록 (EMR) 웹사이트	건강기록 (EHR) 모니터링	개인건강기록 기반 맞춤형 서비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

스마트 헬스케어의 국내 적용 사례는 △원격 협진 △원격 모니터링 △모바일 헬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례들이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기술·혁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들의 정비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원격 협진

2000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원격 의료 사업은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까지도 허용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원격의료 법·제도는 의료인력이 ‘해야 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일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의료인력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sup>3)</sup>

● 원격 모니터링

지속적인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2019년 복막투석 환자를 시작으로 분만취약지 산모,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재활, 결핵, 암 등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있다. 원격 모니터링은 보안 문제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신뢰할 만한 서버 구축과 더불어 환자 정보의 파기 시점까지 명확하게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sup>4)</sup>

● 모바일 헬스

스마트폰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의료데이터 관리 주체가 병원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며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소를 주축으로 한 모바일 헬스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만성질환위험 군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바일 앱의 UX/UI이다. 단순한 그래픽을 활용하여 환자가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 및 수요 예측에 기반한 효과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된다.<sup>5)</sup>

이상의 사례와 같이 정부 주도하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한편, 대형 IT 기업 또는 스타트업 등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존 의료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도 있다.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안내서」, 2021.  
 3 WHO, 「보건 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디지털 개입(digital intervention) 권장사항 가이드라인」, 2019.  
 4 WHO, 「보건 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디지털 개입(digital intervention) 권장사항 가이드라인」, 2019.  
 5 WHO, 「보건 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디지털 개입(digital intervention) 권장사항 가이드라인」, 2019.  
 6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및 시장 동향」, 2015.

## 웨어러블 디바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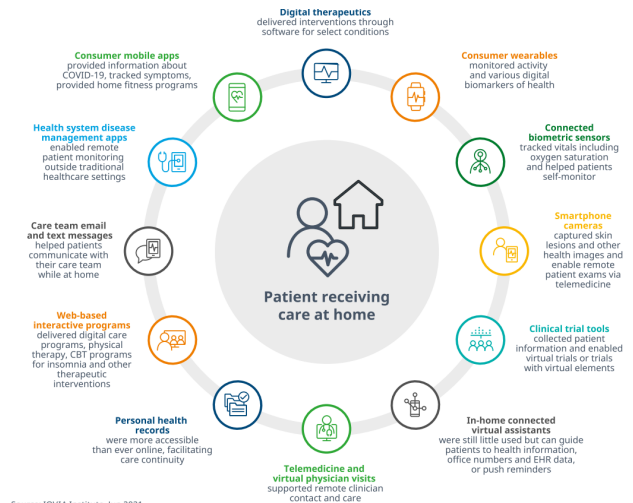
신체에 착용(portable)·부착(attachable)·이식/복용 (eatable)하여 정보처리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지칭한다.<sup>6)</sup>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며,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휴대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다. 이어웨어, 아이웨어와 더불어 밴드 형태로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밴드나 스마트워치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환자뿐 아니라 군인, 운동선수 등의 특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또한 가능하다.

## 집라인 드론

도로 인프라가 잘 깔리지 않은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수혈용 혈액이나 구호 물품, 의료 장비, 의약품 등 다양한 의료품을 나르는 드론이다. 의료품을 요청한 측은 드론에 대한 부수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시간과 인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2016년 아프리카 르완다를 시작으로, 가나와 탄자니아, 필리핀, 인도 등과 같이 도로 인프라가 좋지 않아 의료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로 그 활동 지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하드웨어와 ICT 기술, 의료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이기에 형태 간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분절적으로 사례들을 나열하였으나 사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본 글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훨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그림 2).

[그림 2]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의 종류



Source: IQVIA Institute, Jun 2021

자료: IQVIA, Digital Health Trends 2021.

다시 굴루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스마트 헬스케어는 굴루의 산모가 마주한 도전적인 상황을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문제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스마트 헬스케어는 단순히 기술과 혁신에 대한 발전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 등의 정비 또한 요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도입·구현해 가되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철의 삼각 균형을 맞추어 가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지식공유 등의 지속적인 국제적 공조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



##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성과평가팀 전문연구원 노보배  
bobnoh@kdi.re.kr

분류체계란 유사한 의미와 특징을 가진 자료는 모으고, 다른 자료는 구분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자료가 축적되면 정보처리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2004년 KSP가 시작된 이래 92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500건의 정책자문을 제공하면서 상당한 양의 사업 정보가 축적되었고, 이러한 정보관리를 위해 분류체계가 도입·활용되고 있다. KSP 주제분류체계는 사업 정보의 가용성(Availability)을 확보해주어 정보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특히 KSP를 포함한 ODA 사업은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사전 발굴·기획, 사후 관리·연계가 중요한데 이 활동에 있어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된 사업 정보가 수월성을 높인다. 따라서 KSP 주제분류체계를 대외 변화나 요구에 따라 적절히 개편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새로운 이슈들이 국가적 난제로 드러남에 따라 협력국에서 요청하는 KSP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중요성이 커진 보건, 의료, 디지털, 에너지 등에 대한 사업수요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KSP에 대한 수요 변화는 2019년 전부터 포착되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연도별 KSP 사업신청서 접수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한국 발전경험과 관련성 높은 주제인

산업무역, 거시·금융은 여전히 수요가 있지만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고 환경, 보건·복지는 증가를, 행정, 국토개발은 평균 30~35건 정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대외 변화를 기존의 KSP 주제분류가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후 위기로 인해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자문 요청이 증가하였는데 과거에는 국토개발 측면에서 전력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국토개발'로 분류된 것이다. 또한 정혁, 김서영, 허훈(2020)은 KSP 기존 분류체계가 광범위한 부문을 통합하여 한 개 분류로 집계하고 있어, 특정 분야가 과대 집계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KSP 주제분류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2017년 12월부터 약 5년간 사용되던 기존 KSP 주제분류체계를 <표 1>과 같이 개편하였다. 기존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분류(3), 중분류(15), 소분류(34)이었던 것이 세분화, 통합, 신규 생성(명칭 변경) 등으로 각각 5개, 15개, 38개로 증가하였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경제정책'으로 대분류에 크게 묶여있었던 산업분야, 인프라·환경 부문을 분리함으로써 유명무실했던 대분류에 유용성을 높인 것이다. 그 외에도



중분류의 산업·무역 정책의 세분화, 에너지 및 수자원·위생의 신규 생성 등이 있다.

〈표 1〉 KSP 주제분류표(개편 전/후)

개편 전(17.12-)			개편 후(22.6-)					
대분류(3)	중분류(15)	소분류(34)	대분류(5)	중분류(18)	소분류(38)			
경제정책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	경제정책	거시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			
	거시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			금융안정			
		환율 및 국제금융			금융기관 및 제도			
		금융안정			기타 거시금융정책			
		금융기관 및 제도			환율 및 국제금융			
		기타 거시금융정책			재정정책			
	산업무역정책	구조변화와 경제다변화	무역과 수출진흥	재정	공공투자 / PPP			
		무역과 수출진흥	경제개발계획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			
		직접투자	직접투자	구조변화와 경제다변화	구조변화와 경제다변화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산업분야	산업정책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육성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육성			연구개발 및 혁신	연구개발 및 혁신
			기타 산업기업정책	기타 산업기업정책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연구개발 및 혁신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육성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육성
과학기술		기타 과학기술정책	기타 과학기술정책	기업정책	무역			
	기반시설 투자	기반시설 투자	무역과 수출진흥			무역과 수출진흥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직접투자	직접투자	직접투자			직접투자		
국토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국토교통	국토교통				
	기타 국토개발정책	기타 국토개발정책			기반시설 투자	기반시설 투자		
	농촌개발	농촌개발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인프라·환경	에너지				
	교육	교육			에너지	에너지		
사회정책	인적자원개발	교육	사회개발	인적자원개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환경 및 자연자원관리	환경 및 자연자원관리		
	보건 의료	보건 의료			수자원 위생	수자원 위생		
	사회보장	사회보장			농수산·농촌	농수산·농촌		
	노동시장	노동시장 정책 및 사업			농촌개발	농촌개발		
	환경	환경 및 자연자원관리			교육	교육		
	기타사회정책	기타 사회정책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공공부문	재정	재정정책	공공관리	행정				
	공공투자 / PPP	공공투자 / PPP			보건·의료	보건·의료		
	공공부문관리	공공부문관리			의료	의료		
	전자정부	전자정부			사회복지	사회복지		
	공기업	공기업			사회보장	사회보장		
		공공부문관리	공공부문관리	기타 사회정책	기타 사회정책			
		전자정부	전자정부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행정	행정			
		고용·노동	고용·노동	고용·노동	고용·노동			
		노동시장 정책 및 사업	노동시장 정책 및 사업	노동시장 정책 및 사업	노동시장 정책 및 사업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자료: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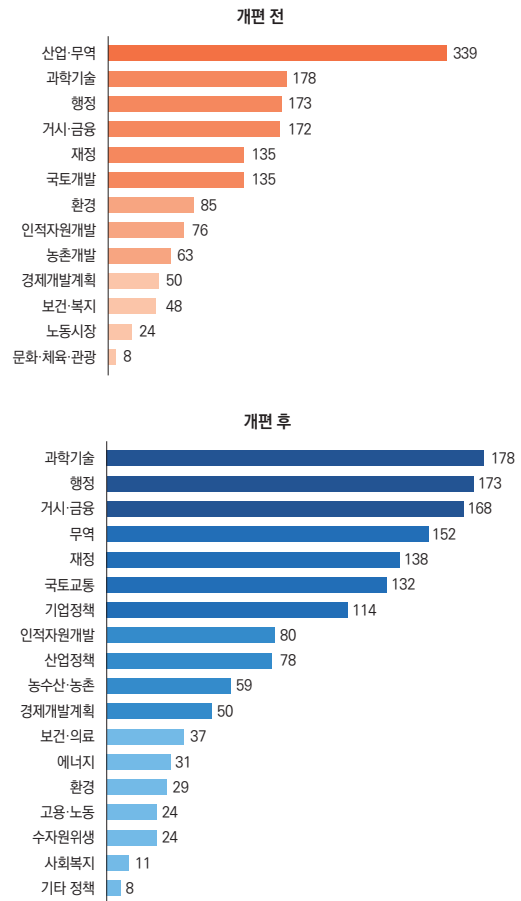
주: (범례) 명칭변경 세분화 통합 신규

개편 전후 중분류에 따른 KSP 사업실적 통계는 [그림 1]과 같다. 사업실적 상위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편 전 사업실적이 339건(자문수 기준)으로 독보적 1위를 차지한

산업·무역은 산업, 무역, 기업정책으로 분화되면서 무역이 4위로 152건, 기업정책이 7위로 114건이 집계되었다. 분류체계에 있어 주제 영역 간 균형 유지가 중요한데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신규로 생성된 에너지, 수자원·위생으로 각각 31건, 24건이 재분류되어 개별 집계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추가될 정보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가 개편된 것이다.

〈그림 1〉 중분류별 KSP 사업실적(개편 전/후)

(2004~2021/22년 수행 자문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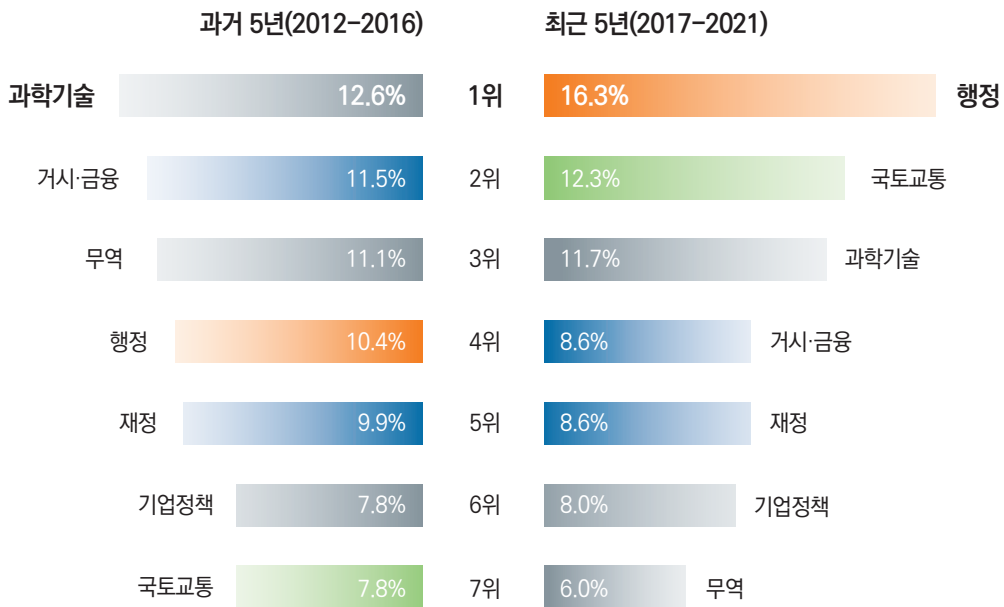
자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개편된 분류에 따라 과거(2012~2016)와 최근(2017~2021) 5년간의 사업실적 상위 7개 중분류를 비교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과거에는 과학기술, 거시·금융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행정, 국토교통이 선두권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한편 3위에 위치했던 무역은 7위로 내려갔으며, 그 외 재정, 기업정책 등은 순위와 비율 면에서 비슷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그림 2] 과거/최근 5년간 사업실적 상위 7개 분야



자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 해당기간 총 자문수에서 각 중분류가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

\*\* 막대그래프 색상은 대분류 표시: 경제정책 | 산업분야 | 인프라·환경 | 사회개발 | 공공관리

KSP는 대내외 요구와 필요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며, 이번에 개편된 분류체계를 다시 변경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시대적 필요에 따라 개편된 체계는 KSP가 과거 한국 발전경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쟁우위 영역과 협력국의 니즈가 만나는 교집합을

한눈에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향후에도 KSP 주제 분류체계는 KSP 수요 분석, 사업실적 평가 등을 통해 KSP를 보다 잘 표현하고 정보 활용에 유용하도록 지속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 2팀 전문연구원 **한재현**  
jhhan@kdi.re.kr

### ● 지식공유의 첫걸음,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2004년에 시작하여...'는 내가 작성하는 대부분의 문서 첫 문장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대담하게 내디딘 첫걸음, 그 여정의 시작점에 우즈베키스탄이 있었다.

이렇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특별한 인연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04년 첫 KSP 보고서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원년 협력국으로 선정한 이유로 1) 향후 경제협력 잠재력과 2)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협력국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고 있다.

2023년에 와서 첫걸음의 순간을 되짚어 보니 현명한 선택이었다. 양국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왔으며, 특히 2019년에는 서로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해를 거듭해 양국 간 협력의 걸음을 이어나가는 동력원이 되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 KSP를 통해 올해까지 총 21개 사업(63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공동컨설팅,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자문결과가 우즈베키스탄 첫 경제자유구역인 나보이 특구 설립과 특구 내 한국기업 입주 유치 등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22/23년에 이르러, 양국 협력을 이전보다 더욱 새롭고 공고하게 할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사업'이 착수되었다.

### ● 양국의 新협력테마, 규제 샌드박스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빈곤퇴치부(現경제재정부)는 2020년 제1차관 명의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정책 개발경험 공유를 요청하였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업친화적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 중이며 해당 정책은 2+2(2년 제도 기획 및 실증, 2년 모니터링)의 형태로 운영된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제도의 도입시기와 운영기간 측면에서 영국,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연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증특례의 규모 측면에서 다수의 과제경험(861건, 2023년 4월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 비교우위가 있다.

이에 2022년 7월 KDI 자문단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

1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중 일부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출처: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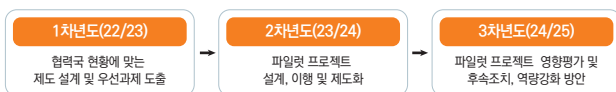
빈곤퇴치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22/23년 사업주제로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제도 시행 시기가 2019년인 점을 감안할 때, 놀랍게도 규제 샌드박스 주제로 협력국에 정책을 자문한 선례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新협력테마인 규제 샌드박스 KSP 사업을 우즈베키스탄과 개시하게 된 셈이다.

## ● 양국의 新협력구조, KSP Plus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 기획과 실증, 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의 검증에 약 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1년 내외의 KSP 기본 사업체계에서는 자문의 범위가 현황분석과 제도 기획 단계로 제한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협력체계에서는 실증·모니터링 단계를 생략해야 하므로 자문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에 정책의 실제적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즈베키스탄 KSP를 2022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KSP Plus의 사업구조로 재설계하였다. 1차년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현황진단과 제도설계 및 우선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자문결과를 토대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설계, 이행을 지원하며, 3차년도에는 2차년도 이행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흐름이다.

[그림 1]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자문주제 연계 흐름도(22/23~24/25)



자료: KDI CID 정책자문 2팀 내부자료 인용

이러한 큰 흐름을 고려하여, 1차년도(22/23 KSP) 사업의 세부주제 1에서는 협력국 규제현황 전반 검토와 협력국 현황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세부주제 2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발전현황, 핀테크 분야 규제현황,

우선추진 과제의 식별 및 파급효과를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세부주제 3에서는 우선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및 관리 제도에 대한 제언을 구상 중이다.

## ● 이어지는 협력의 걸음걸음: 착수부터 중간보고회까지

2022년 11월, 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KSP 자문단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야심차게 착수의 걸음을 내딛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빈곤퇴치부는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제1차관과의 고위정책대화 기획, 핵심기관 면담 주선 (중앙은행, ICT개발부, 은행연합회 등), 현지전문가 섭외 등 모든 일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부처 통폐합(23.1~2월)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발전 빈곤퇴치부의 협조 하에 23년 2월 15일 현지 세미나를 화상을 통해 개최할 수 있었다. 사업성과 도출의 핵심요소가 ‘협력국의 주인 의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오는 5월, 한국에서 초청연수 형태로 진행되는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를 앞두고 우즈베키스탄 사절단 환영 및 한국 선진 사례 소개 등의 준비중에 있다.

## ● 함께 한 20년과 새로운 도전

2024년은 KSP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첫걸음을 함께 내디딘 KSP와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도 20년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가 되면 성년이 되듯, 20년 지기로 동고동락해 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이 가득한 올해 사업의 의미와 성과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사업의 중반에서 야심찼던 시작점을 돌아보며 다짐을 되새기고, 다시 고개를 돌려 나아갈 끝지점과 더 먼 미래를 바라본다. 본 사업이 우즈베키스탄 규제 샌드박스의 설계와 이행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양국 간 새로운 도전과 파생 경제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2 KSP Plus는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21년)를 통해 신설된 사업유형으로 기존 KSP와 사업기간, 규모, 자문범위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기간 및 규모 등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후속주제에 대한 선제적 자문 제공 및 사업연계를 통한 성과발현의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팀 팀장 **우혜영**  
hywoo@kdi.re.kr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와 협력국 청년들의 공동 글로벌 기회를 도모한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글로벌 청년세대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같은 배경하에서 양적·질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전략과 프로그램 현황 진단 시에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전략, 민간부문참여(PSE) 논의를 살펴본 후에 개별 산업(해외건설산업, 창조산업)과의 연계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은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하면서부터 활발히 논의된 분야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기업)를 포함하는 범주 안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초기 진출 단계에는 ‘단기·비정규 일자리’, ‘체형형 일자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협력 인턴 프로그램이 범분야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전반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YKSP(Young KSPians)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민간부문참여 전략(Private Sector Engagement, PSE)을 정리하며 민간기업을 포괄하는 전체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인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장과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 보고서에서는 우선 두 개의 산업(해외건설시장 및 창조산업) 분야와 국제개발협력의 접점을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은 금융을 직접 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 혹은 PF)하여 입찰하거나 사업주가 되어 지분투자까지 하는 민관협력사업(PPP)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들도 점차 증가 추세로 2017년부터 2022년 중반까지 총 221개사에서 278건의 해외 프로젝트가 ODA 재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약 107억 원을 수주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진출 기업의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동 분야 실증분석의 단초를 제공하려 하였다. 권역별 프로젝트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아시아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동·아프리카, CIS·유럽, 중남미가 그 뒤를 이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은 건축이며, 이어 용역, 전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 산업설비, 전기 등의 공종에 속하는 프로젝트가 고용창출 효과나 성장잠재력에 유망한 분야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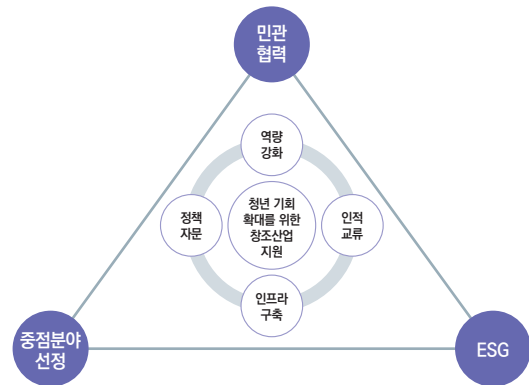
최근 해외건설시장이 단순 도급사업을 넘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민관협력사업, ODA 재원 수주 등으로 다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국제개발협력, 금융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ESG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규제 및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해외건설시장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동 분야 전문가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성과 접점이 있는 언어능력, 협력국 이해도, 전문 분야 역량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을 이용하여 지적재산의 설정 및 활용을 통해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영화, 방송, 음악,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공연예술, 출판 등의 일반적인 문화 상품과 디자인, 패션 등의 장르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은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1974~1978)’ 이후 문화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며 발전시켜 왔다.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ODA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창조산업 하위 분야 중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ESG 척도와 지표를 개발협력사업 전반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그림 1) 참고).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중앙정부 외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지역 소재 다양한 지원기관들을 포괄하는 이해 관계자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산업, 관광 등으로 한정되고 있는 이른바 ‘문화 ODA’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책 마련과 사업 형성이 필요하다.

[그림 1] 창조산업 및 취·창업 관련 ODA 사업 방향성



자료: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2022)

본 보고서는 국내외 청년들의 글로벌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 내 청년 일자리 정책이 사업관리와 연구직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다면,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내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는 전문성(경영, 회계, 홍보 마케팅)을 인식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개발협력 분야인 해외건설산업과 다소 새로운 분야인 창조산업 간의 국제개발협력 접점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와 협력국 청년들이 글로벌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와 국제 개발협력사업의 연계와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 한국개발연구원(KDI), 세계은행 KWPF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감사패 수상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원장 조동철)은 2023년 4월 25일(화) 개최된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이하 KWPF) 설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KWPF 10th Anniversary Conference)'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정책사례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지식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 KWPF는 2013년 설립된 한국의 세계은행 단독 신탁기금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3억 3천만 달러의 재원을 바탕으로 145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개발도상국 개발사업 및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으로 2022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동 사업은 세네갈 관광 분야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은행의 '관광·기업 발전 프로젝트(Tourism and Enterprises Development Project)'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지식공유세미나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한국 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세네갈 정부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이번 감사패 수상을 계기로 KDI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국제협력 분야의 최신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KDI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식공유 사업, 역량강화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는 경제, 인프라,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왔다.

KWPF 재원을 활용한 주요 사업으로는 'KDI GKEDC-WB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연수'를 들 수 있는데, 세네갈 공무원들을





## YKSP 우루과이 출장 소회 인터뷰



YKSP  
강덕영

kdy98@yonsei.ac.kr



YKSP  
김가혜

kingahyekim@gmail.com



### Q1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YKSP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강덕영** 군대를 마치고 복학 전 PCO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PCO는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의 약자로 국제회의 기획 대행업인데요. 그때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준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KSP나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이 세계에 적용되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저도 이러한 사업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싶어 YKSP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가혜** 학부에서 정치학과 국제학을 공부하면서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ODA를 알게 되었습니다. KSP는 '지식공유'라는 점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ODA와는 다른 성격으로, 이를 직접 경험해보고자 YKSP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2 올해 1~2월 22/23년 KSP 우루과이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 기간 전후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나요?

**강덕영** 한마디로 출장 기간 한 명의 '서포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장을 가면 PM이나 PO분들은 출장 전후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굉장히 바쁘신데요, YKSP는 출장 전 국가 개황 조사와 출장 중엔 회의록 정리 및 녹취, 회의 참가자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김가혜** 출장 전에는 우루과이 현지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였고, 출장 기간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출장 지원 업무를 담당수행하였습니다. 출장 후에는 SNS 홍보를 위한 출장 후기 포스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CID 소식

## Q3 출장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소감은 어땠나요?

**강덕영** 저에게 이번 출장은 '사람의 중요성'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교류가 많이 활성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생생하게 느낀 출장이었습니다.

**김가혜** 길고 긴 비행 후 시작된 짧은 일정이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의 출장단과 항상 웃음으로 맞이해주셨던 우루과이 현지분들 덕분에 좋은 기억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착수회의를 비롯하여 현지 협력기관과의 회의까지 출장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 Q4 이번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강덕영** 우루과이 팀의 사업주제는 '순환경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순환경제는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통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착수보고회에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회에서 주제가 잡혔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던 박사님들을 볼 수 있었는데,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저도 나중에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가혜** KDI의 연구원님들과 수석고문님, 그리고 연구진 분들의 열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위해 고민하고 논의하시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우루과이 측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계속해서 질문하고 협의하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Q5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강덕영** YKSP를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동기와 연구원님들을 비롯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저 자신 스스로에 대한 성찰도 하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비전공자인 저에게 개발협력이라는 분야의 책임과 중요성 또한 알게 되었던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지금 YKSP의 활동 기한이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즐겁게 활동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가혜** YKSP는 분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주제를 실무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YKSP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연구진 분들의 논의를 직접 듣고, 보고, 참여함으로써 연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은 YKSP 활동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면, 「YKSP」를 주목!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면 KSP와 함께!**  
**글로벌 지식공유사업 체험 프로그램 YKSP 7기 모집**  
Young KSPians  
2023. 6. 19(월) ~ 7. 7(금)

**기획재정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Knowledge Sharing Program**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란?**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KDI가 수행하는 글로벌 지식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해외에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자격**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열정을 가진 대학(원)생
- 선발인원**  
선발인원 | 10명 내외 (사정당 1~2명)

협력대상국	지원 주제
몽골	경제수입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설립
베트남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스타트업 지원
캄보디아	중소기업 및 대학창업 생태계 조성 역량강화
우즈베키스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
라지오스탄	선진경제의 강화를 위한 산업 다각화 및 디지털 전환방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관광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필리핀	건설부문 디지털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세르비아	제조산업 기반 혁신 생태계 개선
멕시코	탄화수소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규제당사자 개발

\* 국가 및 주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활동내용**  
활동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10월  
KSP 사업 참여: 국내 회의 2회(당당 1회, 해외 출장 2회(당당 1회) 및 5회)  
그 외 활동: 국내 약 8회(당당 1회)  
\* 해외에 국가사업 참여에 대한 활동 기간이 단축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활동장소** | 서울, 세종, 협력대상국
- 활동혜택** | 수료증 발급 및 국내외 출장경비 지원, 개발협력분야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 기회 제공
- 모집일정**  
서류 접수 | 2023년 6월 19일(월) ~ 7월 7일(금)  
면접대상자 발표 | 2023년 7월 28일(월)  
면접 | 2023년 7월 28일(수)  
최종합격자 발표 | 2023년 7월 28일(금)  
오리엔테이션 | 2023년 8월 3일(목) ~ 8월 4일(금) \*10시  
\* 오리엔테이션 참여 필수입니다
- 문의/안내**  
국제개발협력센터 | 김수민 연구원  
YKSP 담당자 | 044-550-4277 | smk@kdi.re.kr

지원서 작성 QR 코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Young KSPians (이하 YKSP) 7기를 모집한다.

YKSP는 KSP 사업과 개발협력분야 회의 및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KSP 체험 인턴십’이다.

2023/24년도 KSP 사업의 주요 단계(국외 출장 포함)에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 실무를 배우고 싶은 참가자들은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KSP 공식 사이트(ksp.go.kr) 내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7월 28일 공식 발표되며, 인턴십 활동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 행사

## 제56차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KDI는 2023년 5월 2일, 제56차 ADB 연차총회에서 ‘한국 세미나의 날’을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한국 세미나의 날’은 ADB 회원국 정부와 민간, 학계, 국제기구 등 전문가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당면한 문제와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DB 연차총회는 아시아 주요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는 ADB의 연간 최대 규모의 행사로, 올해는 우리나라가 주최국이 되어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ADB 연차총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연차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국의 관심을 받았다.

그 중 ‘한국 세미나의 날’은 연차총회 1일 차의 주요 이벤트이자 주최국인 한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ADB 회원국, 국제기구, 공공, 학계, 미디어 등 200여 명의 참석자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동 세미나는 기초 세션과 ‘아시아 복합위기’,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전환’, ‘재정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로 4개의 세션으로 나누었다. 각 세션에는 ADB, OECD, IMF,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와 KDI, 산업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KDI 조동철 원장과 실증적 빈곤퇴치 연구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가 연사로 참여한 기초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조동철 원장과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경험과 경제개발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크레이머 교수는 “인적자본 투자와 기술을 통해 성장한 한국이 오리이론의 대표 사례”이며 “개도국에 공유할 수 있는 적합한 경험을 가진 국가”라고 평가하였다. 두 연사는 벤처혁신기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60~70년대 고도성장기의 한국을 정책 실험을 통해 성장한 “벤처 국가”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크레이머 교수는 KSP와 같은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도 한국 경험을 확실히 적용하기보다 실험적 접근법을 통해 소규모 도입과 평가, 최적화 과정을 통해 개도국의 맥락과 여건에 맞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번 행사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 디지털 격차 등 복합적 위기를 직면한 아시아 지역의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을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험의 가치와 리더십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